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2년도 제12호

### 전일본유도연맹

**‘전국저때 꿈은 아이들에게 가혹하다’...일본 초등학생 전국유도대회 개인전 폐지**

박은하 경향신문 기자

### 청소년정책연구원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국내 청소년 한달에 10번 체육활동·한번에 평균 1시간반 운동**

김기훈 연합뉴스 기자

### COVID-19

**코로나19시대, 실외 실내 스포츠의 온도차**

나규향 중부일보 기자

###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세계 챔피언’ 이상혁 “2m40 넘고, 파리올림픽 금메달까지”**

하남직 연합뉴스 기자

### 전국 고교 야구

**대기업 후원, 스포츠클럽 합류에 판꺼진 고교야구**

박재홍 서울신문 기자

### 체육회 짝퉁 체육복지금, 공금 횡령

**‘민선 1기’ 체육회 잇단 비리로 수사 도마 위...민선 취지 무색**

송승민 노컷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전국제패 꿈은 아이들에게 가혹하다'.. 일본 초등학생 전국유도대회 개인전 폐지

일본에서 매년 여름 열리던 초등학생 학년별 전국 유도대회가 올해부터 폐지된다.

전일본유도연맹은 연맹이 주최하던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중·경량급 개인전 대회를 올 여름부터 폐지하고 강습회 등의 이벤트로 대체한다고 각 도도부현 연맹에 최근 통보했다고 아사히신문은 22일 보도했다. 개인전을 폐지하지만 단체전은 유지한다. 연맹은 통지문에서 “지나친 승리지상주의”를 폐지 이유로 들었다. 지도자가 어린 선수에게 과도한 체중감량을 강요하거나 학부모들이 판정시비에 열을 올리는 일 등이다. 경기 전 곤약만 먹으며 체중을 6kg 감량하거나 대회를 앞두고 중압감으로 불면증에 빠진 학생들도 있다고 전해졌다.

연맹은 승리 지상주의가 유도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만 떨어뜨리고 엘리트 스포츠의 강화에도 도움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일본에서 초등학생 전국대회는 2004년 시작됐으며 이전에는 지역대회만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초등학생 유도 인구는 2004년 20만명에서 2021년 12만명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일본과 대조되는 사례가 프랑스다. 프랑스에서는 안전 등의 이유로 13세 미만 아동들의 대회는 열리지 않는다. 프랑스는 지난해 기준 44만명의 유도인구를 자랑하며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 혼합 단체전에서는 프랑스가 일본을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하기도 했다.

야마시타 야스히로 일본유도연맹회장은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토너먼트 대회에서 우승자는 한 명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패자가 된다”며 “고통을 극복하고 정상을 목표로 하는 것도 스포츠의 일부이며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싶은 사람은 도전하면 된다. 하지만 초등학생 무렵에 그런 목표를 향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스포츠계에서는 스포츠는 승패가 중요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란 이미지가 강한데 이를 타파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느긋하게 수련하면서 유도를 좋아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도연맹의 결정이 다른 종목으로 확산될지 일본 스포츠계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다. 럭비 국가대표 선수 출신 교육학자 히라오 쓰요시 고베신와여대 교수는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연령대에서의 대회는 그저 성장이 좀 더 빠른 아이들이 승리를 독식하는 장이다. 제도 자체가 낙오자나 탈락자를 낳는다”며 “모든 스포츠에서의 초등학생 전국대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내 청소년 한달에 10번 체육활동... 한번에 평균 시간 반 운동



국내 청소년들은 한 달에 10번가량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한 번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때 평균 1시간 반 정도를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24일 공개했다.

연구진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초 6~고 3 청소년 2천23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스포츠 활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한 달간 응답자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횟수는 평균 9.6번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평균 참여 횟수(10.85번)가 여학생(8.04번)보다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평균 참여 횟수(12.81번)가 중학생(9.31번)이나 고등학생(8.57번)보다 많았다.

하지만 스포츠 활동에 한 번 참여할 때 사용하는 시간을 보면, 고등학생(92.82분)이 중학생(90.77분)이나 초등학생(80.70분)보다 많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는 다른 학교급에 비해 적지만, 일단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을 의미한다.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56.6%로 나타났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기간은 3년 이상(30.4%), 1년 미만(25.3%), 1년 이상 2년 미만(24.9%) 순이었다.

또 최근 2년(2019~2020년)간 학교 체육수업 이외 스포츠 강습에 참여한 적 있다는 응답자는 65.4%였다.

남학생의 참여 경험(68.4%)이 여학생(61.8%)보다 높고, 초등학생(71.1%)과 중학생(71.5%)이 고등학생(55.9%)보다 높았다.

학교체육 수업을 제외하고 응답자들이 스포츠 강습을 주로 받은 장소는 민간체육학원(57.1%)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지역사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34.1%에 불과했다.

참여율은 초등학생(44.0%), 중학생(38.8%), 고등학생(24.8%) 순으로 낮아졌다.

연구진은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이 다양해지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스포츠 활동이 학교체육 영역에 한정되기보다는 지역사회 영역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자메모] 코로나19시대, 실외 실내 스포츠의 온도차



지난 24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란과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을 승리로 장식했다.

한국 대표팀은 11년 만에 이란에 승리를 거둔 것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이후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첫 유관중 경기를 치르게 됐다.

이날 6만 4천명의 관중이 경기장 전 좌석을 메웠음에도 육성 응원만 금지한 채 취식을 허용하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유관중 경기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다.

지난 2년간 리그 대부분을 무관중 경기로 진행했던 한국프로야구(KBO) 또한 올시즌 개막전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전 좌석 입장을 가능하게 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미래를 구상하는 야외 프로 스포츠와 달리 실내 스포츠 및 종목별 대회는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프로배구의 경우 올시즌 V리그 여자부를 조기 종료하면서 최종 우승팀을 가리지 못했으며 아마추어 스포츠의 경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일부 선수들이 불참하거나 대회가 연기되는 등 홍역을 앓고 있다.

개막을 두 달여 앞두고 있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또한 각 시도별 대표 선발전이 일부 연기되면서 대표 선수 등록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표 선수 등록은 오는 4월 22일까지로 1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4월 예정된 대표 선발전이 연기된다면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에게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젠 선수들이 코로나19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대회에서 출전 여부를 떠나 성적이 갈리는 시대가 됐다. 코로나19로 향방이 갈리는 스포츠를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간 대회를 준비해온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체육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세계 챔피언' 우상혁

# "2m40 넘고, 파리올림픽 금메달까지"

'스마일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특유의 밝은 미소를 띠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섰다. 그의 가슴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메달이 걸려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산했던 인천국제공항에 함성이 들리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우상혁이 22일 오전 '남자 높이뛰기 세계 챔피언'의 위용을 뽐내며 금의환향했다.

우상혁은 20일(한국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스타크 아레나에서 열린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4를 뛰어 우승했다.

2월 6일에는 체코에서 2m36을 뛰어 지난해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자신이 작성한 한국기록(2m35)을 넘어섰다.

2021년 8월, 도쿄 하늘을 날아오르며 한국 육상 트랙&필드 사상 최고인 4위에 올라 '뜨거운 육상 불'을 일으켰던 우상혁은 올해 '세계랭킹 1위'의 완장을 차고, 메이저대회인 세계실내육상선수권 챔피언의 왕관을 썼다.

한국 선수가 세계실내육상선수권에서 우승한 건 역대 처음이다.

'한국 최초' 기록을 써 내려가는 우상혁은 여전히 '최초 타이틀'을 갈망한다.

우상혁은 귀국 인터뷰에서 "최초 기록을 또 쓰고 싶다. 2m38, 2m40을 넘고 2024년 파리올림픽 금메달에도 도전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다음은 우상혁과의 일문일답이다.

-- 한국인 최초로 세계실내육상선수권 우승을 차지했다.

▲ 미국과 유럽에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 유럽 투어에 도전한 건, 나도 처음이었다. 김도균 코치님과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기분 좋다.

--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마르코 탬베리(이탈리아)의 축하를 받았는데.

▲ 탬베리가 '이번 대회 우승자는 너'라며 '즐기라'고 말해줬다. 탬베리도 이번 시즌 첫 실전을 치러서 부담 없이 출전한 것 같다. 대회에 출전한 높이뛰기 선수들과 즐기면서 경기했다.

-- 우승이 확정된 뒤, 눈물을 흘리던데.

▲ 육상은 비인기 종목이다. 나도 도쿄올림픽에서 4위를 하면서 주목받긴 했지만, 당시에 메달은 따지 못했다. 이번 시즌 세계랭킹 1위로 세계실내육상선수권에 출전했지만, 우승을 장담할 수는 없었다. 정말 1위를 하고 나니, 어깨를 눌렀던 짐이 내려간 것 같았다.

-- 실감은 나는가.

▲ 경기 때는 선수들이 모두 축하해주고, 관중도 내 이름을 불러줘서 색다른 기분을 느꼈다. 한국에 오니, 더 실감이 난다.

-- 이상 스테판 홀름이 금메달을 수여했다.

▲ 정말 뜻깊었다. 홀름은 나의 롤모델이자 이상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았다. '내가 정말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했구나'라고 생각했다.

-- 2m31에서 1, 2차 시기 실패 후 압박감을 느꼈을텐데.

▲ 나는 항상 '준비는 확실히 했다'고 생각한 뒤 경기에 출전한다. 김도균 코치님도 '위기가 한 번은 온다'고 말씀하셨다. 3차 시기를 앞두고 '내가 2m31을 넘지 못하면 다시 뒤로 가는 거고, 넘으면 더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2m31을 성공한 뒤 팔짱을 끼고, 바를 바라보는 세리머니를 했다.

▲ '봤나, 내가 지금 세계랭킹 1등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음 높이에서 승부해보자'라는 마음을 자신감 있게 표현했다. '찰칵 세리머니'는 준비한 건 아니고, 눈앞에 증계 카메라가 있어서 즉흥적으로 했다.

-- 이상혁에게 '최초'의 의미는

▲ 항상 '최초'라는 타이틀을 원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었으니, 앞으로 또 다른 '최초 기록'을 쓰고 싶다.

-- 기록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비결이 있는가.

▲ 딱히 비결이라고는 말할 수 있는 건 없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금 알게 됐다. 도쿄올림픽에서 성과도 내면서 올림픽 이후에 더 즐길 수 있게 됐다. 훈련할 때도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 2021년 6월 2m31을 뛴 때까지 기록이 정체돼 있었다. 이후 9개월 만에 2m36까지 기록을 높였다.

▲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김도균 코치님을 만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았고, 한 단계 성장했다. 코치님의 역할이 80~90%였고, 나머지는 내 몫이었다. 코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 도쿄올림픽에서 2m39, 세계실내선수권에서 2m37에 도전했다. 앞으로의 목표는

▲ 이제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내 목표는 2m38(이상혁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아이디는 2m38의 의지를 담은 W00\_238이다)이다. 2m38을 넘으면 2m40을 목표로 정할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6m20의) 장대높이뛰기 실내 세계신기록을 세운 아먼드 듀플랜티스는 6m19에 50번 넘게 도전했다고 한다. 6m19를 넘은 뒤, 6m20도 넘었다. 나도 2m37에 도전할 기회를 계속 얻고 있다. 이런 기회가 쌓이면 언젠가는 2m37을 넘고, 2m38, 2m40까지 넘을 수 있을 것이다.

-- 7월 세계선수권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 '월드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쉽게 얻을 수 없다. 탬베리도 세계실내육상선수권에서 우승한 뒤에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올림픽 금메달도 땀다. 나도 세계실내육상선수권에서 우승했으니 이제 (실외)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목표로 준비하겠다. 그리고 늘 말한 것처럼, 파리올림픽 우승에 도전할 것이다.

-- 세계선수권이 4개월도 남지 않았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한숨을 내쉬며) 체중 조절을 계속해야겠죠. 내게 가장 어려운 게 체중 조절이다. 도쿄올림픽이 끝난 뒤 군사 기초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체중이 15kg 정도 불었다. 다시 집중해서 체중을 줄여 이번 대회에 좋은 성과를 냈다. 3개월 전 미국으로 떠날 때 82kg이었는데, 세계실내선수권대회는 68kg으로 치렀다.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고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 4개월 내내 체중 관리를 해야 하는 건 슬프다.(웃음) 내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한다.

# 대기업 후원, 스포츠클럽 합류에 판커진 고교야구

고교야구대회의 판이 커졌다. 대기업 후원과 연이은 야구팀 창단, 학교 밖 스포츠클럽이 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하면서 출전팀 규모도 최대를 기록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따르면 올해 첫 고교 야구대회인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25일 목동구장과 신월구장에서 개막한다. 지난해까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로 치러지던 이 대회는 신세계그룹과 후원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신세계 이마트배로 간판이 바뀌었다.

지난해 SSG랜더스를 창단한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6월 21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야구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전국야구대회 개최 제휴 협약을 맺었다. 4월 11일 예정된 이번 대회 결승전도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고교야구대회 역대 최대 규모인 88개 팀이 참가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였던 봉황대기의 84개 팀보다 4개 팀이 더 많다. 참가팀 증가는 전국에 새롭게 신설되는 야구팀이 많아졌고, 학교가 아닌 민간에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이 정식 야구팀으로 참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해부터 고교야구대회에 스포츠클럽인 '베이스볼클럽(BC)'에서 19세 미만의 선수들에 대해 고교야구대회 참가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야로BC, 밀양BC, TKBC, 여주IDBC 등의 야구부가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서울자동차고와 창원공고, 경인IT 등 전국 고등학교에서도 야구팀을 새로 창단하고있다.



# ‘민선 1기’ 체육회 잇단 비리로 수사 도마 위... 민선 취지 무색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며 민선 체육회가 출범했으나 지역 체육회에선 잇따른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전북 장수체육회에선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단에게 '짜퉁' 체육복을 지급하는가 하면, 무주에선 1억 2천여만원의 예산이 사라졌다.

국회는 지난 2019년 자치단체장과 체육회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체육회가 각종 선거에서 정치인들의 선거 조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2020년 민선 1기에 돌입한 체육회가 탈정치화로 독자적인 운영의 첫발을 내디뎠으나 조직과 예산 운영에서 각종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장수군체육회에선 선수단에게 이른바 '짜퉁' 체육복이 지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체육회가 단가 10만 원의 체육복을 구입한다며 4천만 원의 예산을 받았으나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단에게 가격이 더 낮은 짜퉁 체육복 400여 벌을 지급한 것이다.

체육회는 기부금을 받는 조건으로 값이 저렴한 브랜드 체육복을 베낀 가짜 체육복을 납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3일 배임수재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장수군 체육회장 A씨와 직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주군체육회에선 예산관리 담당 직원이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횡령액 중 8천만 원은 무주군이 무주군민 체육대회를 위해 지급한 것으로, 대회는 코로나19로 취소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사건이 드러나 일단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으나 공범 여부나 자금 흐름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남규 공동대표는 "단순히 실무자의 책임으로 떠넘겨선 안된다"며 "사람의 문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원인을 찾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거나 내·외부감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등 관리지침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충고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체육 꿈나무들 위한 아름다운 선행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3281342480990233>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투자·유치 보육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https://www.news1.kr/articles/?4629179>

[장애인체육 SNS] 경북장애학생체전 참가신청 내달 6일까지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203290100177640010966&servicedate=20220328>

익산시, 공공실내체육시설 26일부터 개방

<https://www.nocutnews.co.kr/news/5729846>

구미시, 전국소년(장애학생)체육대회 분야별 점검 나서

<http://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05270>

전북체육회,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 성금 전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5\\_0001807167&clD=10808&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5_0001807167&clD=10808&pID=10800)

문화·체육·복지 한곳에... 조치원 복컴센터 30일 준공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7028200063?input=1195m>

연말까지 자격정지된 北올림픽위, 총회 개최... "체육선진국 돼야"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6009800504?input=1195m>

울진군 체육회, 산불피해 돕기 성금 전달

<http://www.kbsm.net/news/view.php?idx=343729>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